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15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5.04(월)

매각과 청산이라는 한계를 넘어, 선을 넘는 싸움을 시작하자!

5.1 세계노동절 경북대회 개최



노동절은?

노동절(메이데이)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헤이마켓 사건)을 기원으로 하는 세계적 기념일이다. 한국에서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 하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불리다 2025년 노동절명칭을 복원, 2026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026년 5월 1일 14시, 포항 협력회관 앞에서 '136주년 세계노동절 경북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주최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경

주지부와 금속노조 경주지부 집행부 및 각 지회 교섭위원, 조합원들이 참석해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대회는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처음 맞는 노동절로, 노동자의 주체성과 권리를 바로 세우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광석 열사 정신계승!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특히 법정 공휴일 지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공무원, 교사 등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날 대회에서는 2026년 과제로 원청교섭 쟁취와 초기업 교섭 확대를 통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또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으며, 지역 차원의 노동 정책 강화와 공공성 확대를 통해 노동 중심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공유됐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서광석 열사의 죽음은 자본을 넘어 국가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막아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절 명칭 회복과 권리 확대는 중요한 변화지만 원청교섭 쟁취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계속되어야 한다”며 “보수 정치가 지배해 온 경북에서 노동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은 노동자 권리 확대와 사회 변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직된 힘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 지부장은 투쟁발언에서는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노동시간과 조건을 바꿔왔다. 하지만 매각과 청산 문제는 넘지 못한 한계였다”며 “이제는 자본의 일방적 결정에 맞서 그 선을 넘는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모비스 등 산업전반의 구조 속에서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매각 저지와 현장 사수를 위해 총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계노동절 경북대회는 노동절의 역사와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변화된 조건 속에서 노동자 권리 확대 과제를 위한 투쟁현안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경주지부는 원청교섭 쟁취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투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